

중공중앙 대만사업판공실

량안 교류 협력 촉진 관련 10 가지 정책조치 발표

중국국민당 주석 정려문은 중공중앙과 습근평 총서기의 초청에 응해 방문단을 이끌고 4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륙을 방문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정려문 주석을 회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 량당과 량안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량안 관계의 평화발전을 추동하고 동포들의 친밀감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부문의 협상을 거쳐 중공중앙 대만사업판공실은 권한을 위임받고 대만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발표했다.



2025년 7월 4일, 제 22 회 '대만 청년 1,000 명 하계캠프'에 참가한 대만 동포들이 중산대학 지질광물박물관을 참관하고 있다. / 신화넷

첫째, 국공 량당은 상시화 소통기제를 모색하고 건립한다. 중공공산당, 중국국민당은 '92 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공통된 정치적 기반에서 '량안 모두 한 가족' 리념을 견지하며 량안 동포들이 평화, 발전, 교류, 협력을 바라는 공통된 념원에 부응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량안 교류, 래왕, 융합을 적극 추동하고 량안 동포들과 함께 중화민족의 지속적인 복지를 마련하고 중화민족 력사의 새로운 휘황을 써내려가야 한다.

둘째, 국공 량당 청년의 쌍방향 교류 기제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국 청년련합회와 국민당 청년사무발원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량안 청년 교류활동을 개최한다. 전국청년련합회 등 대륙의 유관 단위는 매년 20 개 대만 청년단체를 대륙으로 초청하여 교류 방문하도록 한다.

셋째, 복건 연해지역은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금문, 마조에 물, 전기, 가스, 다리를 연결하여 금문, 마조 주민들의 리익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넷째, 량안 항공 객객 직항 로선 정상화의 전면적인 회복을 추동하고 량안 인원 래왕을 가일층 편리하게 한다. 우룸치, 서안, 할빈, 곤명, 란주 등 도시의 량안 항공편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지지한다.

다섯째, '92 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소통기제를 건립하고 검역 기준에 부합되는 대만 농수산물에 대륙의 각종 전시판촉회, 상담회에 참가하여 판로를 확장하도록 지지한다.

여섯째, 대만 관련 어업의 진입 권리를 보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

에서 대만지역의 원양어선 정박 및 원양어획물 하역을 위한 부두, 정박장 건설을 연구한다. 대만 원양 자재 어획물이 대륙에서 판매되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일곱째, 요구에 부합되는 대만 식품 생산기업이 대륙에서 등록하고 대만 식품을 대륙으로 수입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여덟째,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만 소액 상품 거래시장을 신설하는 것을 연구하고 대만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대륙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지한다.

아홉째,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고 내용이 건전하며 제작이 정밀하고 량호한 대만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도입하여 대륙의 위성채널과 인터넷 시청각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륙의 웹드라마 창작에 참여할 수 있다. 량안의 친밀감과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데 유리한 영상문화작품들이 량안에서 방영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중화문화의 보호 계승과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

열째, 상해시 및 복건성 주민들의 대만(본 섬) 개인관광 시범운영 사업을 재개하도록 추동한다. / 신화넷

김정은, 포병구분대 포사격 경기 참관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15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대련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포사격 경기를 참관하였다. 김정은은 포병 무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

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면서 인민군대는 포병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새로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포병 무력 현대화의 전략적 구상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신화넷

조선 외무성:

일본 <외교청서>, '군국주의 행보'에 분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4일, 조선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얼마전 일본 정부가 상투적인 강도적 논리와 어불성설로 엮어낸 2026년 <외교청서>는 '군국주의 행보'를 분철하기 위한 모략 문서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범죄적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데 그 진목적이 있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은 '주변 위협설'로 '제2의 제국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급진적으로 질주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군국주의 행보'를 분철하기 위한 모략 문서, 대결 문서이다. / 신화넷

담화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나라들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요설을 늘어놓는 것은 전쟁국가로서의 법률적, 제도적 완성과 침략적 공격 능력 확대를 추구하면서 지역의 안보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데 그 진목적이 있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이 조선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결코 들면서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흔들려보려고 망상하는 것은 조선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리익, 발전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이다. / 신화넷

한국, 2040년까지 접경 병력 단계적 감축



2019년 6월 14일, 관광객과 외국 기자들이 한국 고성군에 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 / 신화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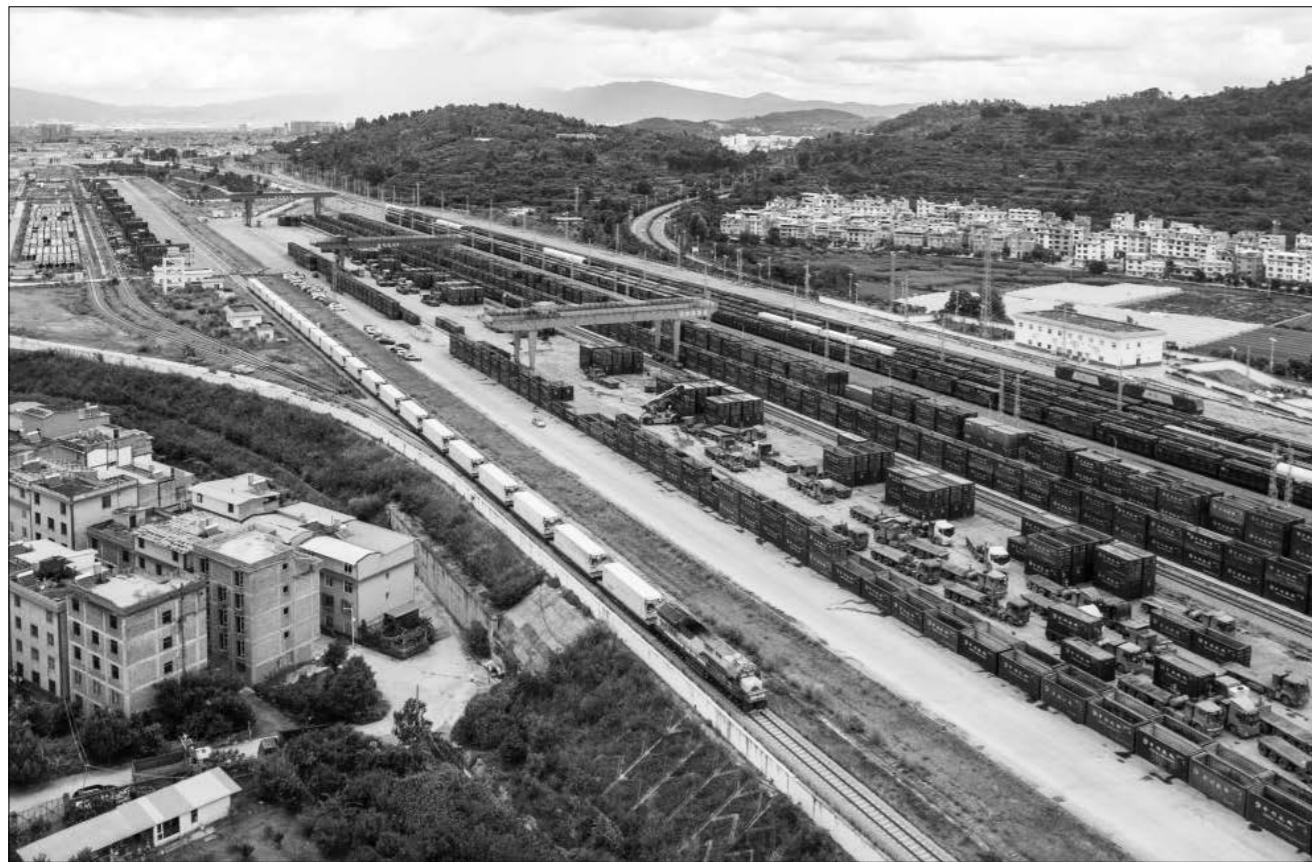
9일, 한국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국방부가 2040년까지 조선반도 접경지역 주둔 병력을 '점진적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단기간내 대폭 감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규백은 기자들에게 현재 접경지역 일반 초소에 배치된 2만 2,000명의 병력을 약 6,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인력 대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 감시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단기간내 접경 병력 대폭 감축이 감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규백은 '페이스북'에 "이전에 언급한 병력 감축 계획은 단계적 평가를 거쳐 2040년까지 실행할 목표"라며 "래일부터 바로 병력이 줄어들면서

불안을 초래할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규백은 현재 한국의 인구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접경 감시 업무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이 최소 18개월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지만 인구 감소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 여러 접경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 름근 12개 전체 탐방로를 재개방한다고 밝히고 통일부는 9일,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를 10일부터 재운행한다고 전했다. / 신화넷

중국, 아세안 + 중일한 지역 생산망의 주요 중추로 부상



2025년 8월 23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가는 국제화물열차가 중국-라오스 철도 운남 목계 연화역을 출발하고 있다. / 신화넷

아세안 + 중일한 거시경제연구사무소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이 지역 생산망의 '주요 중추'로 자리잡았다. 이 기구는 2026년 아세안 + 중일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년 동안 아세안 + 중일한 지역의 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역 회복력의 핵심 지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급 측면에서 지역 생산망이 깊은 진화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본래 일본을 중심으로 하던 망이 이제는 중국을 기둥으로 하는, 더욱 밀집되고 상호 연결된 구조로 전환되었

다." 이는 중국의 '확장되는 제조 역량, 물류 기반시설 그리고 중간재 무역에서의 핵심적 지위' 덕분이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는 '중국에 대한 단방향 의존이 아닌 상호 의존 및 공생'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아세안 + 중일한 지역 내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여 세계 최종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전했다. 2022년에는 이 지역의 수요 총량이 미국을 넘어섰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이 이 지역 나아가 세계의 주요 소비국으로 부상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동시에 중국의 소비국 역할 강화는 세계 수요에서의 이 지역의 전반적 중요성을 높여 지역내 무역 연계를 심화하고 특정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보고서는 또 지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무역망 및 생산망과 상호 보완 효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구 수석 경제학자 하들은 이날 발표회에서 "현재 공급망 통합이 진행되는 큰 흐름 속에서 아세안 기업들은 자체 역량을 키워 생산과 혁신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며 "국내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충격에 대한 공급망의 회복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图说
我们的
价值观

勤善为本 吉福满门

河南南阳 张新亮作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